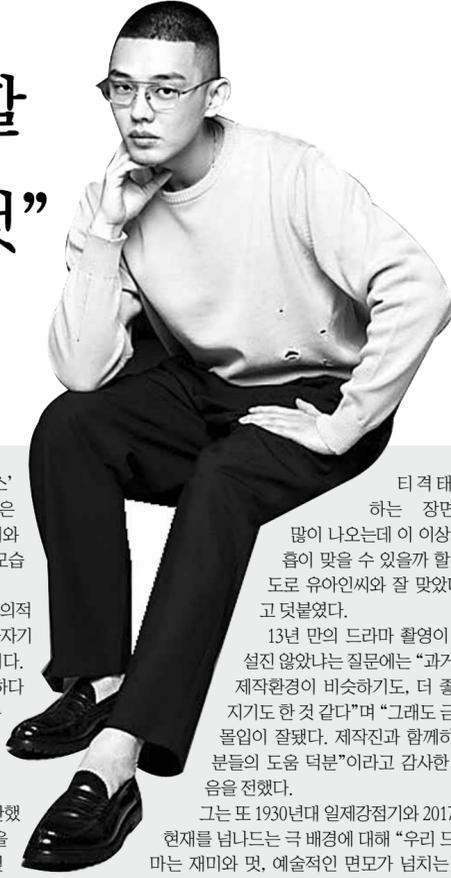


# “꼭 하고 싶었던 작가역할 건강에 무리없이 해낼 것”

유아인, tvN ‘시카고 타자기’ 주연 ... 내일 첫 방영



“군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권력자도 아니고 무슨 힘이 있어서 비리를 저지르겠습니까. 너무 따가운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 따뜻하게 기다려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7일 오후 8시 첫 방송 될 tvN 새 금토드라마 ‘시카고 타자기’에서 슬럼프에 빠진 베스트셀러 작가 한세주 역을 맡은 배우 유아인(31·사진)이 최근 불거진 군 문제와 관련해 다시 한 번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유아인은 5일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 서울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건강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스트레이트 하게 물어봐 주셨으면 더 쉽게 대답할 텐데,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며 먼저 군대 관련 얘기를 꺼냈다.

그는 “지난달 15일에 재검 후 아직 결과를 못 받은 상태”라며 “저 같은 경우 워낙 특이한 케이스이고 많은 분의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라 병무청도 신중하게 결과를 내리려 노력 중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픈 주제에 드라마를 찍느냐고 말이 많은데 사실 지금까지 군대에 가지 못하고 1년간 작품을 쉬었다”며 “그러다 ‘시카고 타자기’란 좋은 작품을 만나 촬영하고 있다. 건강에 무리되지 않게 잘해서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일 만들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카고 타자기’는 한세주와 그의 이름 뒤에 숨은 유령작가 유진오(고경표 분), 한세주의 열혈 팬에서 안티 팬이 된 전설(임수정), 그리고 의문의 귀식 타자기에 얽힌 미스터리 로맨스를 그린다.

특히 ‘해를 품은 달’, ‘킬미 힐미’ 등 탄탄한 스토리 구성을 보인 진수완 작가와 ‘공황 가는 길’, ‘응급남녀’, ‘황진이’ 등 섬세한 영상미를 보여준 김철규 감독이 뭉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시카고 타자기’는 ‘엔틱 로맨스’를 표방하고 있다. 주된 시대적 배경은 2017년이지만 사전 공개된 포스터와 예고편에서 1930년 일제강점기의 모습이 드러나며 호기심을 자극했다.

또한 제목인 ‘시카고 타자기’는 중의적인 소재로 등장한다. 원래 시카고 타자기는 톱스 기관단총을 가리키는 말이다. 총소리가 타자기 치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해 붙은 별명이다. 극에서 세 주인공을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

유아인은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 “꼭 작가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다”며 “특이한 캐릭터 설정에 반했고, 진수완 작가님과 김철규 PD님을 보고 아주 좋은 작품이 나오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파트너 임수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능숙하고 노련하면서 자신만의 고유한 매력과 개성을 가진 선배님이라 기본 좋게 연기했다. ‘착하면 척’ 하는 연기가. 놀라운 순간들이었다”고 설명했다.

고경표에 대해서도 “경표씨와 호흡을 맞춰본 결과 ‘성군관 로맨스’에서 승중기와 호흡했던 것 이상으로 끈끈한 인연과 우정을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수정은 “다들 이번 작품에서 처음 호흡을 맞춰보는데 개인적으로 작품에서 꼭 만나보고 싶었던 분들이라 기분이 좋았다”며 “특히 한세주 역할이 정말 매력적이었고, 또 유아인씨가 연기한다고 해서 선택에 주저함이 없었다. 배우 유아인씨와 꼭 연기해보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실제로 유아인씨의 솔직한 면모들이 한세주와 닮은 부분이 많다”며 “전설과 한세주가

티격태격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상 호흡이 맞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유아인씨와 잘 맞았다”고 덧붙였다.

13년 만의 드라마 촬영이 낯설진 않았으나 질문에는 “과거와 제작환경이 비슷하기도, 더 좋아지기도 한 것 같다”며 “그래도 금방 물입이 잘됐다. 제작진과 함께하는 분들의 도움 덕분에”이라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또 1930년대 일제강점기와 2017년 현재를 넘나드는 극 배경에 대해 “우리 드라마는 재미와 멋, 예술적인 면모가 넘치는 작품”이라며 “두 시대가 보여지지만 어느 타임슬립 소재와는 다른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고경표는 함께 출연하는 유아인과 임수정이 동인으로 유명해 부담되지는 않는다는 질문에 “이 자리를 빌어 자백하자면 전 ‘노안’인데 그게 제 장점이자 매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또 전 작품인 ‘질투의 화신’에서 함께 연기한 공효진과 이번 작품에서 만난 임수정의 매력에 대해 “비교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어떤 종교를 믿느냐 물어보는 수준”이라며 진땀을 뺐다.

그는 임수정에 대해 “제가 연기공부를 할 때 두 분 다 시대의 뮤즈 같은 분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임수정이 옆에서 “시대의 뮤즈요?”라고, 유아인은 “왕년에?”라고 맞받아쳐 또 웃음이 터졌다.

연습뉴스



- 27일 또봇:로봇군단의 습격
- 28일 스머프:비밀의 숲
- 5월3일 슈퍼 배품:스파이 대작전

스머프·또봇·배품 ...

## 극장가 인기 캐릭터 총출동

가정의 달 맞아 애니메이션 영화 다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애니메이션 대작들이 쏟아진다. 이달 28일 개봉하는 소니 픽처스의 ‘스머프: 비밀의 숲’은 스머프의 주요 캐릭터 4인방인 스머프, 토폴, 당치, 주책이가 우연히 발견한 비밀의 숲에서 모험을 하는 내용을 그렸다. 파란색 피부를 가진 작은 요정 스머프는 벨기에 작가 피에르 콜리포드가 창조한 캐릭터다.

1981년 미국에서 TV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 세계 40여 개국에 방영되면서 어린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극장판은 환상적인 비밀의 숲과 기상천외한 식물들의 모습 등 볼거리가 한층 더 풍성해져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스머프를 보고 자란

중장년층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TV 시리즈로 방영돼 캐릭터 상품과 함께 선풍적인 인기를 끈 국산 애니메이션 ‘변신로봇 또봇’도 극장판으로 재탄생했다.

오는 27일 개봉하는 ‘극장판 또봇:로봇군단의 습격’은 인간을 로봇의 부품으로 만들려는 악당에 맞서 싸우는 또봇과 파일럿의 활약을 그린 작품. 2013년부터 총 4년의 제작 기간을 거쳐 극장판으로 완성됐다.

특히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안녕, 형아’ 등에 참여한 양동명 프로듀서가 기획단계부터 함께해 기존 TV 시리즈와 차별화된 스토리 개발 등에 힘썼다.

또 다른 국산 애니메이션 ‘슈퍼 배품:스파이 대작전’은 5월3일 관객들을 찾는다. 배품은 2006년 EBS와 투니버스에서 TV 시리즈로 선보인 토종 캐릭터로, 영국 BBC 등 해외 각국에 수출됐다.

그밖에 드림웍스의 신작 애니메이션 ‘보스 베이비’도 5월 초 간판을 내린다. 7개월 된 동생 보스 베이비와 7살짜리 형 팀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영화로, 지난달 31일 북미에서 개봉해 ‘미녀와 야수’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알렉 볼드윈, 토비 맥과이어 등 쟁쟁한 할리우드 배우들이 목소리 연기에 참여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체나 불날)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TV블로그 고프리 30 아침연속극 (아이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소셜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사람과 사람들 55 감성애니 하루 2 스페셜	00 수목드라마 (추리의 여왕) (재)	00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재)	00 애니갤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05 다시, 첫사랑	00 MBC 정오뉴스 20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재)	00 SBS 12 뉴스 30 KBC 12뉴스 50 지식총집 55 특목 보충설계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넷워킹기획 문화산책 55 2017 KBS배 전국 춘계 남녀하기대회		20 수목드라마 (자체발광 오피스) (재)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재)	30 헬로키즈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00 뉴스브리핑
3	25 코리언 지오그래픽 플러스	0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10 헬로키즈 야호! 동물탐험대 2 55 내일은 언제나 푸름	
4	00 4시 뉴스집중	00 누가 누가 잘하냐	2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 (재)	00 토크콘서트 화통 55 지식통조림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터닝메카드 W 2 30 주간연예수첩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았어라 30 생방송 TV블로그 고프리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닥터 365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독한 일꾼들	5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공사청리특집 8부작 UHD 유네스코 세계유산 55 감성툰 곁잡습니다	00 수목드라마 (추리의 여왕)	00 수목드라마 (자체발광 오피스)	00 드라마 스페셜 (사임당, 빛의 일기)
11	00 KBS 뉴스라인 40 목요기획 2부작 어디서 누구와 살아야 할까?	10 해피 투게더	10 MBC 100분 토론	10 자기야-백년손님
12	30 넷워킹 문화특선 올댓뮤직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MBC 뉴스 24 55 메이저리그다이아리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 미리보기 (윗 동네 직업세계)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인보우 루비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출동! 슈퍼웬스 08:00 당동명 유치원 1~2 08:30 똑딱맨 08:45 Why - 최고의 호기심파지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09:15 엠마 까투리(재) 09:30 물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치킨 클럽샌드위치, 콘샐러드)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오 나의 미자 씨) 12:40 지식체널e 12:45 명의(재) 13:40 다크영화 - 김 위외 인생 (프롬 씨 부부의 차장만리) 14:30 호기심나라 오기도 15:00 그림을 그려요
15:05 두키 탐험대 15:20 마사와 공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랜던하이로 삼국전 16:15 허풍선이 과학소(재) 16:30 Why - 최고의 호기심파지(재) 16:45 당동명 유치원 1~2(재) 17:15 뽀롱뽀롱 뽀로로(재) 17:30 로보가 폴리 17:45 똑딱맨(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4 19:00 갤럭시 안전 프로젝트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50 세계테마기행 (개혁의 땅 미국 남서부기행 - 광과 모험의 땅) 21:30 한국기행 (어는 환한 불날 - 봄은 그리움) 21:50 리얼극장-행복 (7년만에 만난 엠마와 딸, 배우 이재은)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금쪽같은 내 새끼랑 (사미자 할머니, 손자와 함께 오사카를 거닐다) 24:05 지식체널e 24:10 스페이스 공감 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6일(음 3월 10일 癸亥)

<p><b>子</b></p> <p>48년생 가볍게 여기다가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60년생 우선순위에 기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72년생 실적이 없다면 끼어들 필요가 없다. 84년생 계획대로 일해야 알찬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 <b>행운의 숫자 : 71, 34</b></p>	<p><b>午</b></p> <p>42년생 정곡을 찢어야만 한다. 54년생 판세를 안정시키는 디딤돌이 되어 줄 것이다. 66년생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 78년생 임시방편적이려면 속수무책의 수밖에 없으니라. 90년생 주관에 기초한 추측은 오류를 낳는 법이다. <b>행운의 숫자 : 67, 99</b></p>
<p><b>丑</b></p> <p>49년생 여러 사람들의 공동된 정서에 기초하여야만 편협하다는 평을 면한다. 61년생 침심함이 행운을 안겨다 줄 것이다. 73년생 방도를 세우지 않으면 궁지에 몰릴 수 있다. 85년생 마지막까지 모두 신경 써야 하겠다. <b>행운의 숫자 : 14, 18</b></p>	<p><b>未</b></p> <p>43년생 노력을 전제한다면 유익한 국면이 이른다. 55년생 결과는 마친가지이다. 67년생 한 순간에 많이 허러면 험드니가 평상시에 생활하는 것이 적절하다. 79년생 의지의 상관없이 해나 가야 할 때다. 91년생 깔끔하게 보아라. <b>행운의 숫자 : 03, 01</b></p>
<p><b>寅</b></p> <p>50년생 자원을 달리하는 관점에서 보아야 좋다. 62년생 복합적인 구조 속에서 가능성이 보인다. 74년생 부담스럽다면 체면 불구하고 피하는 것이 낫겠다. 86년생 적절한 절제대로 가장 현실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b>행운의 숫자 : 06, 35</b></p>	<p><b>申</b></p> <p>44년생 절대로 무리수는 두지 말라. 56년생 버려진 일이 이루어지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68년생 대세를 인식하고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80년생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니 평면만을 인식하지 말라. <b>행운의 숫자 : 39, 57</b></p>
<p><b>卯</b></p> <p>51년생 제3자의 모순 행위에 대해서 그냥 넘기지 말고 타산적책으로 살아야만 생산적이다. 63년생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75년생 복잡한 관계들이 보인다. 87년생 끝까지 가보지 전에는 속단하지 말라. <b>행운의 숫자 : 25, 42</b></p>	<p><b>酉</b></p> <p>45년생 가닥이 잡히면서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57년생 솔직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69년생 돈은 생기지만 지출되는 액수가 훨씬 더 크다. 81년생 한 번에 끝낼 일을 여러 번 나눠서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b>행운의 숫자 : 67, 07</b></p>
<p><b>辰</b></p> <p>52년생 구대의연합을 일시에 청산하고 청신함을 도모할 때다. 64년생 애초부터 마음에 걸렸던 것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다. 76년생 행하고 싶거든 기탄없이 처리해야 한다. 88년생 기운은 갈려나 실행하는 일만 남아 있다. <b>행운의 숫자 : 15, 31</b></p>	<p><b>戌</b></p> <p>46년생 뜻하는 바가 있다면 미루지 말고 행해야 한다. 58년생 고생한 만큼의 보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 감수하라. 70년생 평상시의 기량을 발휘한다면 능히 해낼 것이다. 82년생 현행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b>행운의 숫자 : 65, 09</b></p>
<p><b>巳</b></p> <p>53년생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게 되는 양태이다. 65년생 부담스러웠던 일의 수고로움을 덜어 주는 아가 나타날 수도 있다. 77년생 생 정세 파악에 능해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89년생 진실을 기정하는 것이 보인다. <b>행운의 숫자 : 54, 81</b></p>	<p><b>亥</b></p> <p>47년생 전혀 실속이 없으니 빨리 청산할수록 이익이다. 59년생 다 되어 가던 일이 반복해서 지연되는 입지이다. 71년생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깊은 뜻을 깨달을 것이다. 83년생 열과 성을 다한 식민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 <b>행운의 숫자 : 94, 59</b></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연락!” ☎010-9790-8237